

# 사회 인사들의 한 말씀

## 삶속에 스며드는 생활불교 돼야

최근덕 <유도회 회장>

"참음이 없다면 모든 행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선가귀감>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음의 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욕 비리밀'을 대중 속에 널리 퍼 화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장을 병 <우리정경연구원 이사장>

아직도 불교는 현대사회의 개인복락을 기원하는 경향이 많아 불교의 역할과 기능이 좁혀지고 있음을 느낀다.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대중의 삶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불교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문자에 얽매어 '지' 않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불교계에서 너무 소홀한 듯해 아쉬움이 있다. 후세의 증빙을 위해 훌륭한 불교의 역사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이철 <국회의원·민주당>

관속록 자비와 평화의 길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상 모두에 그 자비가 넘치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아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불탄일의 넓고도 깊은 의미를 새기며 불교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한다.

김도현 <문체부 차관>

지난 역사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한 시대 한 문명의 지점이 된 적이 있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와 공존이 가장 큰 과제인 오늘날 불교는 또 한번 지도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까. 막대한 대지에 내리는 새 시대의 단비가 되기를 불교계에 바란다.

한승원 <소설가>

물질적인 부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불만이 누적되고, 인간사회를 동물적인 사회로 만든다. 후기산업 사회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인간성 회복과 도덕 재건설을 위해서 불자들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

김상연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법구경에 "몸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또 안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처럼 올바른 몸과 마음을 지니도록 계도에 앞장서는 것이다. 그것이 곧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 가르침을 동불살아 말보다 실천으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한 사람의 삶의 스승이 수천명의 학문의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는 진정한 '삶의 스승'이 없는 시대이다. 불교는 이 시대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나는 등대가 될 참된 삶의 의미를, 이념으로써가 아닌 수행으로써 몸으로써 보여줄 스승 자리를 찾아야 한다.

박제천 <문학이카데미 대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고향, 지치면 돌아가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고향, 생각만 해도 흐뭇한 고향, 가볍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불교이기를!

하일성 <아구인>

종교는 인간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요즘 불교의 사찰들을 보면 점점 현대화 서구화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현대화도 좋지만 전통을 보존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건상 <성균관대 교수>

생활속의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걸었던 불교가 제 모습을 찾고 있는 듯해 반갑다. 분규를 추방하려는 자정의 노력과 국민의 삶 속에 파고드는 생활불교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이상호 <청년정보문화센터소장>

법종단 개혁이 후 변화를 시도하는 불교계 노력에 지지할 보낸다.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가 생명구제와 민족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김상현 <교원대 교수>

올해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생명의 지평한 가치를 애기함이 오히려 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부처님이 이 땅에 나셨음은 인류사의 가장 빛나는 한대목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화합과 지혜가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서정윤 <시인>

불자들이여! 부처님을 부자로 만들지 마시라. 부처님은 충분히 부자입니다. 자신의 내세를 위해 인간이 필요한 것으로 부처님을 더럽히지 마시라. 부처님이 보시고 싶은 건 지비의 마음입니다.

이종락 <서울신문사 기자>

요즘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자들의 사회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타종교 신자들에게 비해 사회문제에 대한 감각과 의식결여가 심각하다고 본다. 승려들에 대한 교육도 개혁종단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의식불자」를 키우기 위해 모든 불교인들이 각성하고 분발해야 할 때이다.

### 특별대담

독일문화원장 오토박사 VS 영산스님



오토박사(우)와 대담을 나누는 영산스님.

## “불상 볼때마다 마음속에 평화”

독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20여년간 고국을 떠나 각국의 문화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프레트 오토 박사(55세 문학박사)는 3년째 주한 독일문화원 원장으로 한국에 근무하며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일 불상을 바라보는 오토박사를 만난 고려신문 주지 영산스님이 만났다. <편집자 주>

한국에 근무하시지도 3년이 되었는데 한국과 한국의 불교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는 즐거움과 평화스럽습니다. 그동안 여행하면서 저는 언제나 한국의 불교에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신도님들의 신앙심이 매우 돈독하다는 것과 사찰의 아름다움 그리고 불교 문화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지요. 그런 감탄의 순간들이 한국과 불교에 대한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았습니까. 한국의 불자들이 어떤 봉축인사를 하고 싶으신지요.  
▲자연이 다시 살아 숨쉬는 좋은 시절에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신 모든 불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 주위에도 많은 연등이 달려 있는데 이들의 빛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원장님의 종교관은 어떤 것입니까?  
▲20여년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다보니 아주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거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풍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는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 때 인류는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제 생각은 '내적인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찰을 다니다 보면 불상이나

탱화에서 한결같이 평화스럽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상을 모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여러 형태의 불상을 봤는데 한결같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부처님상을 보면 모사품이라도 구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는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떨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흥족해져서는 안됩니다. 인류의 마음이 깨끗하면 범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든 언론이든 정치든 모두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를 최소화

한으로 줄여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불교 자체가 평화와 인간의 성찰을 추구하는 만큼 폭력적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역사적으로 불교가 제 기능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b>금강경 독송회</b>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일동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131-80 ☎ 742-0172	은평포교원 <b>삼보사</b> 주지 윤지원 신도회장 임석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 352-6406	한국불교태고종 <b>선정사</b> 주지 상운 신도일동 경남 김해군 대동면 주동리 994 ☎ (0525) 31-6389	조동종 <b>청련사</b> 주지 윤지명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 379-3935	대한불교조계종 <b>통도사 독일포교원</b> 주지 병오 베를린 Neve christ str. 4 ☎ 0049-30-3256440, 3225737
대한불교조계종 <b>화장사</b> 주지 석우 신도일동 경북 달성군 화원읍 천대1리 516번지 ☎ (053) 632-5516	대한불교조계종 <b>선석사</b> 주지 지환 경북 성주군 월암면 인촌 8 ☎ (0544) 933-9800	<b>연화정사</b> 주지 정명 신도일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5-183 ☎ 887-6458	중남산 송광사 주지 지원 크로마 하~프 합창단 회장 이우숙(아란나행) 회원 및 신도일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 (0652) 243-8681, 8091	대한불교조계종 <b>선안사</b> 주지도심 신도일동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308-24 ☎ (051) 864-1600, 865-7769
대한불교조계종 <b>성지 비슬산 유가사</b> 주지 김문성 대중일동 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2동 115번지 ☎ (053) 614-5115	<b>마이산탐사</b> 주지 혜명 신도일동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번지 ☎ (0655) 33-2900, 32-0652, 32-007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b>문수사</b> 주지 허혜정 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2 ☎ 391-2061	<b>총호사</b> 주지 이현종 신도일동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339-5 ☎ 430-8585	<b>약사포교원</b> <b>정법대학</b>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각성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 474-0554 / 팩스:472-5292
대한불교조계종 <b>신어산 은하사</b> 주지 김대성 금강회, 금육회, 청년회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삼방동 662 ☎ (0525) 37-0101~5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서울 포교당 <b>대명사</b> 주지 허원명 금강선원 회장 이돈우 대명사 신도회장 배불성화 금강선원 참사회: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정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0호 ☎ 553-4856~7	대한불교조계종 <b>능인정사</b> 성동불교포교원 주지 법경 육바라밀 회장 성장업각 능인불자일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 462-1335, 1339 / 팩스:462-1339	대한불교조계종 <b>고려선찰 만덕사</b>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신도일동 부산 광역시 북구 만덕동 32-2 ☎ (051)334-3009	재단법인 선학원 <b>여여선원</b> 원장 혜운 신도일동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 (053) 622-0336, 629-4945 / 팩스:(053) 655-3825